

● 送年特輯座談會

1975年 館界의 回顧와 展望

日 時 : 1975年 12月 12日

場 所 : 協會事務所

參席者 :

公共圖書館界 李 鴻球(서울市立東大門圖書館長)

大學圖書館界 朴 熙永(東國大圖書館司書課長)

特殊圖書館界 李 丙洙(國會圖書館圖書課長)

學校圖書館界 蘇 時重(培材中高校司書教授)

圖書館學界 盧 玉順(梨大圖書館學科教授)

協 會 朴 大權(事務所長)

司 會 玄 圭燮(國立中央圖書館司書官)

1. 1975年度에 館界에서 이루어졌던 括目할만한 일들은 무엇인가?

司會 :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해동안 해온 일을 회고하고 앞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하자면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좌담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75년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반성해 봤으면 합니다. 데요 우선 관종별로 회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계에서의 일들을 이흥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鴻球 : 공공도서관계는 이렇다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담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공공도서관계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발전되어야 하겠고 지금으로서는 이렇다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번에 청주와 제주도에서 공공도서관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점인데 전에는 그러한 회의를 개최하면 불과 20, 30여명 정도 참석했는데 이

번에는 50여명이 참석하여 어느 때보다도 성황을 이루었다는 점이 조금 달라진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교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104개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잘되고 있는 도서관이 과연 몇개나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각 시도별로 검토해 봐도 겨우 30여개 정도 밖에 도서관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약 30여개관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司會 : 그런데 지난번 모임에서 보니까 관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러한 현상이 세대교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달리 볼수 있는지요.

李鴻球 : 이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공도서관이 교육위원회라던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사람을 자주 교체해요. 그 교체하는 이유가 공공도서관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朴熙永 : 그것이 공공도서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도서관에 일반화되어 있는 암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로서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몇해전에는 이러한 일이 조금은 안정이 된 것 같았읍니다만 그러다가 요즘은 새로 고개를 든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무엇보다도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은, 어느 조그마한 공공도서관을 보고 느끼



(座談會 光景)

계된 것인데 언젠가 평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큰 도서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적은 도서관이라도 많이 만들어져서 평준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李鴻球: 그렇죠. 그것이 공공도서관의 애로인데 지방에 가면 사서가 없어요, 군립도서관의 경우 군청직원이 자기의 일을 맡아보면서 겸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司會: 대학도서관계는 그래도 어느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보는데 말하 자면 대학도서관은 우리 나라 도서관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는 리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어느정도 발전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인 것 같아요. **朴熙永** 선생님께서 75년도에 대학도서관계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朴熙永: 우선 금년도에 대학도서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예년 하던 것과 같이 국립대학도서관장 및 사서장 회의가 계속해서 개최되었고 18개 사립대학이 가입되어 있는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가 활동을 했는데 이 협의회에서는 석 박사 학위논문들 각 대학에 30부씩 제출토록 결의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논문 30부를 내놓는 것은 개인에게 사실상 큰 부담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는 그 결의사항이 시행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30부를 받아서 19개 대학에 보내면 각 대학으로부터 논문을 받으니까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되겠지요.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일을 생각했지만 특히 각 대학에서 앞을 다투어 외국 학술잡지를 주문하는데 몇몇 대학이 그렇게 밀지 않은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이라면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잡지를 주문해 가지고 서로 빌려 볼 수 있는 조치를 하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보다 많은 종류의 학술지가 들어 올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큰 일종의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것의 준비 단계로 금년도에 준비되었던 목록을 모두 수합하여 그것을 가지고 종합목록을 만들 예정입니다.

司會: 말하자면 공동수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朴熙永: 공동수서라고는 아직 볼 수 없고 중복된 자료를 국가적으로 봐서 가급적 피하고 정 필요한 것은 더 들여오더라도 서로 교환해 보자는 것이지요.

李丙洙: 국회도서관에서 석 박사 학위 논문목록을 발간하고 있지요. 그것이 처음에는 인식이 잘 안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나라 전체 석 박사 학위 논문이 모두 실린다고 하니까 그 목록에 실려야만 학위논문이 공증되는 것처럼 되어서 이제는 많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司會: 대체적으로 대학도서관은 협력이라고 하는 점

에서 선구적 역할을 했지요. 연대, 이대, 서강대간의 협력이라던지 외과대학 도서관간의 협력체제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 외에 대학도서관계에 두드러진 현상은 없었는지요.

朴熙永: 그외에 예산면에서, 모두는 아니겠지만 조금 증액되었다는 점들을 수 있겠습니까.

司會: 그런 것 같습니다.

근래에 와서 학문이라고 할까 학술진흥이 예년에 비하여 많이 심화되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한 것에 따라서 대학도서관도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朴熙永: 도서관을 이해하는 교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츰 대학도서관들이 나아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체가 다 그렇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차츰 차츰 그러한 도서관이 많아 질 것으로 보여지며 그것은 학술연구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봉사가 점차 나아져 가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司會: 그러면 학교도서관계로 넘어 갈까요.

蘇時重: 비교적 뒤떨어진 관중이 학교도서관이 아닌가 생각되며 75년도에 공공도서관 세미나를 두 번했다는 점이라던지 대학도서관계에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뒤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생각해 보면 75년도에 팔목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으나 일선사서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한 학교도서관연구회가 창설된 것이 새로운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전에 보면 사서교사 TO가 배정되었다가 호지부지 되었다던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중에서도 비교적 피동적인 입장에 있던 상태에서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누가 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일선에 있는 사서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능동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발표하자는 의도로 학교도서관부회내에 연구회가 창설되었다고 하는 것이 특색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특히 청소년하고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하는 점에 대하여 성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까지 되



(李鴻球先生)



(林熙永·先生)

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또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보는 단계까지 되었는데 그 원인으로서 정서가 결핍되고 정서가 결핍된 원인으로 현재의 교육제도에 맹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독서교육의 결여면으로 연관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관심의 초점이 청소년들하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

는 것이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학교도서관의 책임자나 교육계의 이면에 이어져서 좀 더 새로운 계기로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지도면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사서교사라고 인식되는 점이 특색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司會: 청소년 범죄문제와 독서교육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는 스스로 자성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蘇時重: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인식되어 지고 있지요.

司會: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문제도 거론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蘇時重: 뚜렷이 내놓을만한 일은 없으나 서로 모여지면 얘기되어 지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고요, 특히, 사서교사들이 그런면에서 새로운 계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도 그러한 모티브가 되어진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다음으로 특수도서관 분야를 더듬어 보도록 하지요. 비교적 활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이 병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李丙洙: 활발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분야에 비하여 활발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서울연구개발단지를 중심으로한 도서관 활동이 활발하게 앞서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과학이나 생산기업체가 이런데 대한 봉사면이 크지 않은가 합니다. 그곳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 정리방법도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으나 차차 기계화되어가고 있는 점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류목록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보 인포메이션을 다룰 수 있는 방법 등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협력체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특수도서관이 개인기업체 등에서 설립하고 운영되어지는 곳도 있으니 만큼 앞으로 제일 발전되고 활발해질 분야는 역시 특수도서

관 분야가 아니겠는가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공공도서관이 제일 발전되고 앞서가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다른 관종의 도서관이 먼저 발전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회도서관이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옮겼다는 것이 크게 움직여진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도 조금은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朴熙永: 그런데 특수도서관이 다른 관종보다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예산의 뒷받침이 어느정도 다른 관종보다 좋은 여건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재가 그리로 쏠리고 들어 합치게 되어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司會: 국가적인 요구도 그렇지요. 현재 국가에서는 경제, 산업, 자연과학 등 이러한 것에 치중을 하고 그것을 육성해 나갈려고 하니까 그러한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도서관 분야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겠지요.

李丙洙: 그런데 특수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서적 입장에서 인사문제가 대단히 많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특수도서관은 어느 소속기관의 도서관이던지 그 기관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일겁니다. 그러나 역시 큰 사업체나 기업체일수록 자료실이 커야하는 것이지요.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같이 산업기관에서 자료를 사가지고 연구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뒤통지한다는 관념 또 도서관을 유지해야만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정보를 빨리 수집해가지고 이 용할 수 있다는 것이 빨리 인식되어야 하겠습니까.

司會: 대체적으로 1975년도에는 대학도서관하고 특수도서관이 괄목할 만한 사실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학계에서는 어떠했는지요 노옥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盧玉順: 75년도에 다같이 느낀 것으로서 두어가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면, 우선 도서관학과 교수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았고 협의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도서관학과가 생긴지 이미 오래되어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각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내용을 정비하여야할 단계가 오지 않았는가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가지고 각 대학에서 유사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들이 모여서 실제로 어떤 내용이 가르쳐지고 어떤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현재 변화되는 추세와 요구에 응할 수 있겠는지를 다같이 합의 연구

하여 변화된 새로운 교재를 발견해 보자는 것이 구체화 되어져 이제 저작에 들어간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좋은 책들이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너무 등떨어진 교수내용이 없지않아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정비되고 새로운 책이 나오면 교수하는 분들이나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서로 혜택을 입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해요. 둘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화여대가 실험대학으로서 계열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입학 당시 도서관학과를 지망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3학년이 되어서 자의로 학과를 택하여 도서관학과에 들어 오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그러한 학생을 받았는데 과거에 보면 학생들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불평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의 절개의사로 도서관학을 택해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받을 때보다 학생수는 줄었지만 대단한 열의를 갖고 자기 전공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절적인 면에서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소수의 학생을 걸러내지만 앞으로 도서관계를 위하여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요. 셋째로 교수들이 연구발표하는 것이 교수들의 본분이지만 금년에도 예년에 못지 않게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많이 발표된 점은 매우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司會: 그러면 다음으로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서 도서관협회를 이끌어 왔는데 75년도에 협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박대권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大權: 협회일이 도서관 일이고 도서관 전체의 일이 협회의 일인데 협회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는데 금년 사업계획중에 특별한 것은 협회창립 20주년을 맞아 20주년사를 발간하는 것과 침체되어 발전을 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도서관 중기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일과 본사업 이외에 IFLA관계 등 서너가지가 특별한 것들이었다고 봅니다. 그외에 개발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을 제도화하는 면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도서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바 75년도 하반기에 와서 도서관법 개정에 대하여 박차를 가해겠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개정시안 초안이 마련되어 유인중에 있고 적당한 시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협회안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IFLA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도서관사업이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아 이 때를 맞추어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계획을 세

우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작업을 하면서 각 관종별 또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되는 점이 참으로 많아요. 그동안 정부에서 법에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시행 안된 것이 있는가 하면 법자체에 빠져 있어서 안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갖게 되면 현실과 맞고 앞을 내다보는 법으로 다시 다음



(蘇時重先生)

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법을 다루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적으로 필요하고 옳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도 별로 관계되지 않는 순수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관대히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李鴻球: 그러면 공청회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요.

朴大權: 그것은 전문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겠지만 몇분에 위촉을 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여 의견을 발표하도록하면 새로운 의견이 추가되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시안의 초안을 작성하면서 의견을 종합하면 적어도 초안정도라도 관철이 되면 매우 선진된 도서관법으로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인력도 모자라는 현실에서 내년도 IFLA대회에 너무나 급급하다 보니 협회 본연의 사업이 소홀이 되거나 앓음까 염려됩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라던지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중기개발계획서 작성과 도서관법 개정안 그리고 도협 20년사 발간은 내년 총회 전까지 매듭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1975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

司會: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사업들을 많이 벌어진 것 같군요. 이상으로 금년 한 해를 보면 일들의 얘기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鴻球: 우리가 존립해 나갈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까 성격을 냉철히 비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발전하려면 우리도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李丙洙 先生)

공공도서관만 하더라도 발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운영재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발전은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朴熙永 :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역시 이상적인 도서관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를 자체문제로서 협동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丙洙 :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이 상호협력 없는 게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이 도서관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회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단독으로 있어야 존재한다고 하는 후진국 도서관개념에 머무러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도서관들이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협력 체제가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 도서관이 발전되었느냐하는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영국이 제일 잘된 나라라고 생각되는데 영국의 도서관이 발전된 것은 도서관제도 자체가 협력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며 정부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나라도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도서관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중진국으로 정진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朴熙永 : 협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 협력체제가 늦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간 많은 인제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미정리 된 것이 많이 정리되어 가기 때문에 요즈음에 와서 협력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司會 : 그런데 한가지 이야기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국가정책으로서 도서관 육성책이 우선 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ATIS"의 문제가 있지만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은 국가의 도서관 정책으로서의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朴熙永 : 그러한 것이 막연하기는 하지만 어느 나라

든지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기가 없이는 그런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협회에서 IFLA대회를 유치한 사실도 우리 나라 도서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문제가 모여서도 한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발전책이 강구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李鴻球 : 어떤 계기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계기만 가지고는 먼 안목에서의 발전책이 마련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도서관대회때 국가 발전을 위한 도서관 정책이란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었는데 거기서 국가 발전을 하려면 도서관 없이는 않된다는 좀 더 학술적인 이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도서관을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절실한 느낌을 가져야만 됩니다. 다만 도서관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또는 도서관은 문화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지 실질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도서관 없는 때에는 나라가 어떻게 된다던지 예를 들면 의무교육을 왜 시키느냐 국민에게 왜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느냐 교육을 안시켰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교육을 안시키면 문맹을 안고 있는 국민뿐이다. 그러면 국가가 발전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육만 시키면 만족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한걸음 더 나가서 학교교육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항상 지식을 섭취해서 받아드리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리고 국가간에 지식의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 생산되고 소모되는 사회라야 그 사회가 칩체되지 않고 잘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전개해서 매 행정부 계몽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司會 : 아까 계기라고 했는데 어느 의미로 보면 계기는 여러모로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 학술진흥 방향이나 사회변모 방향이라던지 국제적인 모든 주변 환경이라던지 이러한 모든 것은 도서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성숙시켰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것을 모멘트로 잡아가지고 국가정책으로 성립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역시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李丙洙 : 새로운 도서관 정보가 얻어지고 그것이 확실성이 있고 빨라야 국가 경제 개발이나 계획 사업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도서관 발전계획이 국가의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司會 :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협동조직이라고 했는데 이 협동에는 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朴大權 : 그렇죠, 우리가 보던 쉽게될 것 같은데 자에게 문제가 있으니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주 모여서 논의하면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겠지요.

司會 : 국가정책의 문제와 협동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李鴻球 : 무엇보다도 중기개발계획과 도서관법 개정 문제는 꼭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국가가 꼭 도서관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내용으로 구속하는 실질적인 법으로 통과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大權 :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내용을 가지려면 요즘 정부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를 우선 잘 알아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도서관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서 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념을 넘어서 차원 높은 교육은 사회교육이라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에게 인식시키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盧玉順 : 단기간내에 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했으면 하는 것은 도서관학 교육 프로그램의 정비라고 할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인가한 도서관학 교육 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수준으로 정비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계와 관계가 밀접해 졌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 매년 학생들을 실습 내보내는데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도서관은 학교에서 내보내니까 수동적으로 받고 학교에서는 학점을 주어야 되니까 내보내는 형태가 10여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평가같은 것이 적어도 이루어지는 관심과 협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朴熙永 : 일선에 있는 사서들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과 좀 더 가까워 졌으면 하는 것은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오늘 날까지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司會 : 현장과 교육자간의 유대관계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李丙洙 : 그런데 학생들의 질이 전보다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학도 향상되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태도 같은 것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외국어를 하나쯤은 완전히 배워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盧玉順 先生)

3. 1976년에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소망되는 것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각오는 어떤 것이어야 하나?

司會 :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교육계와 현장이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 지도록 내년도에도 서로 노력해야 되겠지요.

76년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은 어떠한 것들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朴熙永 : 우선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보다 더 강력하게 인식되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와 주었으면 하는 것이구요. 그럼으로써 어느 다른 과의 직원과 다르다는 것이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대학의 사서가 독립된 하나의 직종으로 뭉으로써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결을 더 나아가서 대학에 있어서의 도서관을 올바르게 이용하려면 적어도 1학년때 교양과목안에 도서관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서비가 보다 많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司會 : 학교도서관은 어떠한지요.

蘇時重 : 도서비는 학도호국단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자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는 비율이 극히 빈약하지요. 예산의 자율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첫째이지요. 둘째로 일하는 사서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한데 그 방법도 교육기관에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교육위원회나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학술연구대회식의 방법을 통해서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행정체제에 도서관에 역점을 두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도서관 담당 장학관이라던지 장학사 등을 배치하여 행정지도 체제가 세워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사서교사 T.O가 부활되어야겠다는 것 등등입니다.

司會 : 끝으로 특수도서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李丙洙 : 생산기업체에 도서관이 많이 설립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부속기관의 부속으로 되어 있는 위치의 도서관이 그 기관에서 좀 더 자기의 위치를 올바르게 차지하고 그곳에 도서관 교육을 받은 사서직이 배치되



(朴大權 先生)

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겹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법에 특수도서관이 적용 배제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司會 : 영국 같은 나라는 특수도서관협회가 상당히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수도서관 발전에 대한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협회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다음으로 협회의 일과 아울러 도서관계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4. 우리들의 장래는 어떠한가? 그 전망은 어떠한가?

朴大權 :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회원들이 협회의 재정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도서관인들은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밀어 주는 측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결론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이제 내년도에 중점사업인 즉 도서관법 개정과 중기개발계획만 우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결실을 보면 사서직의 대우문제라던가 공공도서관 발전문제 학교도서관 육성문제 등등에 대한 것이 풀려지고 도서관계도 큰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朴熙永 : 이제 박국장이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희망적인 점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질 문

제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는데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는 의미에서도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李鴻球 : 한가지 절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책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즉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책이 없다고 하고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쓰는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다고 하는 순환론인데, 여기에 대한 돌파구가 있어야 될꺼예요. 우선 책이 팔린다고 할적에 일차적 고객은 역시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이 많이 생겨야 책이 많이 팔릴 것이고 책이 많이 팔려야 출판이 많이 될 것이고 출판이 많이 되어야 글쓰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야 보다 많은 새로운 지식이 생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도서관의 육성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李鴻球 先生)

司會 :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진지하게 좌담회가 개최된 것도 근래에 드문 일이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한 해가 도서관계의 희망찬 발돋움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되기 빌면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會費와 出版物 代金を 조속히 納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시는 會員 여러 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會員 여러 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會員 여러분께서 納付하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은 協會의 運營은 勿論 圖書館 事業發展에 原動力이 되는 基本資金입니다.

여러 圖書館이 財政的으로 어려운 事情이 있을 것으로 아오나, 協會의 貧弱한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와 그간 未納하신 會費와 出版代金 및 75年度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付託드립니다.